

CFI도민거버넌스 세부분과 1차회의 결과보고

- 청소년분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도민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 코로나19로 인하여 100여명의 참여 도민을 5개의 분과로 나눠 상반기 중 각각 1차 회의 진행

□ 청소년분과

- 일 시 : 2020. 6. 25.(목) 16:30~17:30
- 장 소 : 한림고등학교
- 참 석 자 : 청소년분과 17명 및 에너지공사 관계자 2명
- 주요의견
 - 코로나로 인해 많은 모습이 바뀌었으며 코로나가 끝난 이후도 생활환경이 변할 것이다. 또한, 공장을 닫은 기업과 그로 인해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을 감안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 학생들에게 ‘카본프리아일랜드’라는 프로그램을 가르쳐서 이 상태에 대한 심각성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좋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예측해보고 이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함. 지구의 해수면 상승, 빙하 면적 감소, 섬 침식, 생태계 파괴 등은 인간들이 저지른 일이며, 이에 대해 미래에 어떤 에너지를 써야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음.
 - 제주도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음.
 - 수력, 풍력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 주택이나 아

파트 옥상에 태양광판을 설치해주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든다. 또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고민이 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함.

- 탄소를 쓰는 에너지를 쓰면 안 되고, 풍력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할 것 같다. 풍력 발전기 쪽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야 될 것 같다.
- 전기차 보조금을 더 확대하여 노후 된 휘발유, 경유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주도에서 탄소 없는 섬을 만들려면 신재생에너지를 더 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제주도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양에너지를 발달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에너지를 발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함.
- 기존 계획에서 잘 안된 부분을 수정하고, 학교에서 에너지 사용 줄이는 날을 제정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소등하는 것처럼 시행해야 됨.
-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탄소 없는 섬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연으로부터 피해 안가고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 바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탄소 감축제도를 더 보완해야 되며, 자동차를 타면 많은 탄소가 배출됨으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
-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함.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배터리 등 개발 연구가 많아져야 하고 풍력, 수력 발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함.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판의 설치 확대

가 필요하고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다 버려지는 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했으면 한다. 공공주택에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수를 늘려야 한다. 수소자동차 등 새로운 연료 자동차가 필요.

- 카본프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발전이 미래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우리의 건강,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알고 싶다.
- 전문가 분들과 비교하면 도민들의 의견은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다 반영해 주는지. 탄소사용량을 완전히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전기차로 바꿀 시에 지원금을 보태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년에 나무 10그루씩 심는 것과 같은 계획이 필요한 것 같다. 제주도에 자연과 어우러진 동네를 만드는 것과 도로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
- 천연 발전소를 더욱 많이 설치해서 환경을 지켜야 할 것 같다.

○ 현장사진



‘20.06.25. 청소년분과 1차회의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분과 회의를 마지막으로 도민 거버넌스 세부분과 (총 5 회 차) 상반기 회의 완료.
- 분과회의 결과에 대한 참가자 공유(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 신재생e 분과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중심으로 2차 회의 추진 (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방안 : 개발이익 공유방법과 범위 등)

※ 불임 참가자 의견서 1부.